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 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생각나면 나는 대로 그냥 용광로에다가 넣어버리세요

오늘도 영원한 오늘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항상 한자리를 하고 돌아가면서도, 나날이 밤이 지나고 낮이 오면 또 오늘이라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날은 추워지는데 법당이 마땅치 않아 여러분을 춥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송구스럽군요. 어떡하든지 춥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양회관을 사용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당을 지을 동안 말입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개개인이 이 공부를 안 한다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정신을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정신계의 발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께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승들은 보이는 데서 서로 잡아먹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데서 육체를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잡아먹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육체도 먹히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곤충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치열하게 살고 있죠. 어떤 때는 사실 쓴웃음을 웃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그렇게 비참한 때도 있죠. '모른다면 차라리 괜찮을 것을….' 하는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입는 거는 스스로 따라오게 돼 있으니 넓게 마음을 쓰고 좀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처님 도리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묘해서 누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란 얘기죠.

찰나찰나 나투면서 돌아가는 이 한 생이 길다고 생각하면 길지만 짧다고 생각하면 아주 짧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를 깊이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속에는 모두 자기가 산 대로, 산 차원대로 모습을 쓰고 다시 나올 것인데도 어떠한 모습을 쓰고 나올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가련하게 지금 발버둥이 치고 가는 길이죠. 하여튼 자기가 어떻게 살고 얼마나 진실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모가 나는 것도 둥글게 행할 수 있고 둥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요다음 생에 나올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다음 생이라야 얼마 안 가면 다음 생입니다. 몸을 벗었다 하면 영혼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니까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영혼이 있기 이전이 있는 까닭에,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하면 안 되리만큼 돼 있죠. 그래서 '순간 몸을 벗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하고 한번 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지금 금방 죽으면 그만이지 뭘 그래.' 한다면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영원토록 길은 돼 있고,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하는 이 길 속에서 헤매고 돌게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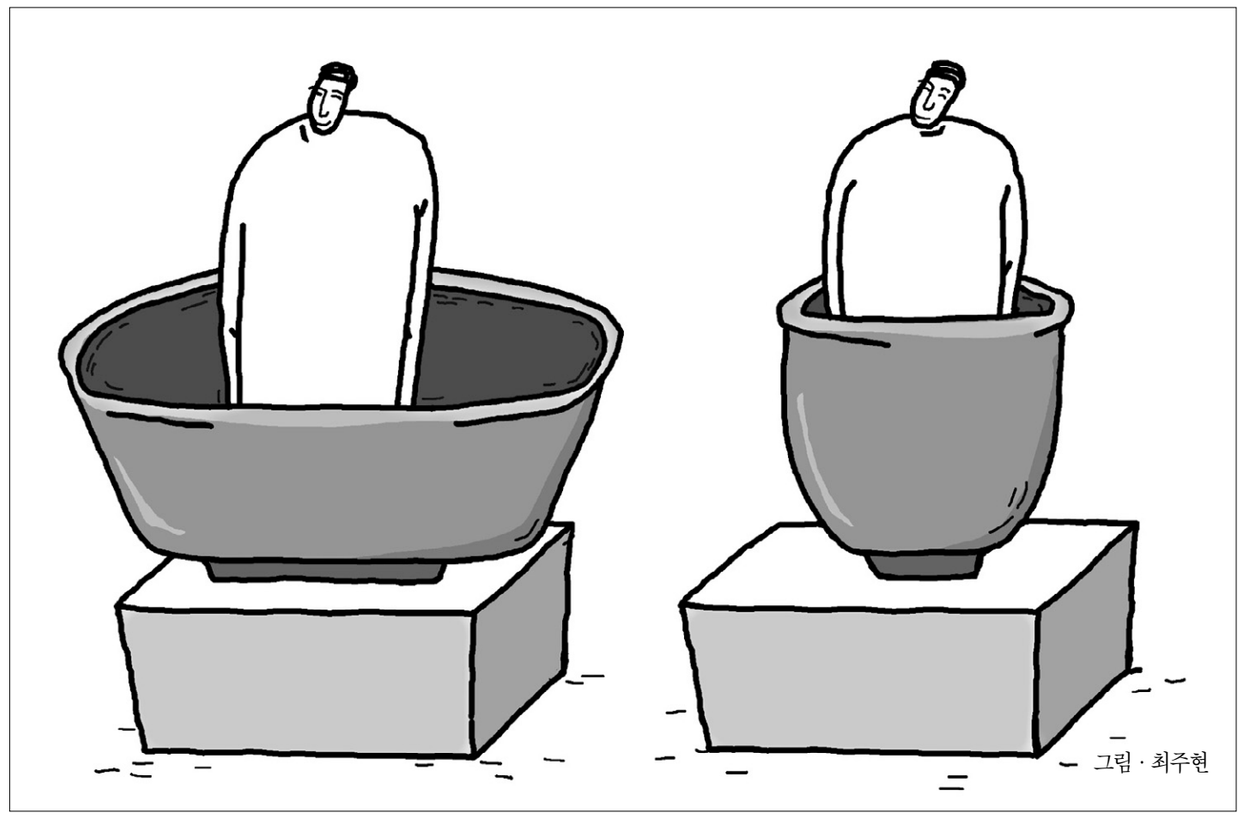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는 물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도를 닦아서 물 바깥으로 벗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고비가 또 있죠. 물주머니를 벗어나야 되고, 공기라는 이름 하의 주머니 속에서 또 벗어나야 하고, 그 속에서 벗어나면 전체 속에서 또 벗어나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길다고, 아주 하염없이 기니까 우린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한 찰나니까요. 한 찰나라는 건, 우리가 평생을 사는 거보다도 한 찰나의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 년 전, 몇천만 년 전의 한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한생각과 맞먹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생각이 중요하니까요.

우리의 몸체 하나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체 하나가 우주라면, 우주 속에 별성들이 헤아릴 수 없이 살고 작용을 하고 돌아갑니다.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으니까 내 한 몸을 가지고 한번 체험해 보시고 경험해 보십시오. 천차만별의 모습들, 생명들,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둘이 아니다 하는 뜻에서 공(空)이 색(色)이다, 색이 공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있어야 속에 생명들이 살고 생명들이 살고 있어야 몸이 있듯이, 둘이 아닙니다. 생명들이 없다 해도 내 몸이 없을 것이고 내 몸이 없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 그것이 어디 둘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체들은 어디서 와서 그렇게 더불어 같이 살게 됐는가? 내가 인연들을 지어서 그렇게 형성시킨 겁니다. 내가 인연들을 짓고 내가 형성시키고 내가 지금 움죽거리고 가게끔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를 하나 연구해서 만들었다면 그 기계를 누가 만지며 누가 작용하게 하는 겁니까? 기계 만든 사람들이 다 작용을 해서 움죽거리게 하죠.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가 형성시킨 이 몸뚱이를 우리 자체가 끌고 가는 겁니다. 누가 끌어가고 끌어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기를 형성시켜 놓고 바로 자기가 그 형성시킨 모습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작용시키는 거죠. 그것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대로 거기에다 부합을 시키는 거죠. 이건 자연의 진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 사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거기에 딱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게끔 해 놓은 것입니다.

오신통 자체가 컴퓨터라고 내가 얘기했죠. 사람이 만든 컴퓨터가 아니라, 이건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말과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 다 수집이 돼서 입력이 돼 있는 것입니다. 뭐 요만큼도 여축이 없이 질서정연하게 입력이 돼 있는 겁니다. 누구의 탓도 할 수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 틈에 선지(善知)도 있지만 악행을 범하는 그러한 업식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 국가에서 별 사람들이 다 살듯이 이 안에도 별의별 마음, 의식들을 가진 생명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자기가 망가뜨리는 것도 있고, 자기 집을 빈집을 만들어 가지고 갖은 영계를 다 불러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끌어들여서 미치게 만들고, 요즘 가지 각색의 병들도 그런 걸로 인해서 다 들어오죠. 그거를 이름해서 영계성이니 유전성이니 인과성이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차원대로 반드시 이 세상을 또 살아야 하니까, 이거는 곰곰이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눈물 나도록 답답한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이날까지 밤이나 낮이나 한번도 내 개인을 생각한 예가 없습니다. 내가 개인으로서 어디 구경을 나간다든가, 내가 딴 사람들처럼 어디 좀 바람을 쐬러 다닌다거나 이런 점도 없습니다. 단 하나, 어떡하면 쉽게 여러분을 이끌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은 그 업식 속에서 마음을 통해서 생각이 나는 거를, 자꾸 꼬리가 꼬리를 물게 오히려 꺼내 가지고 생각을 해요. 안 나는 생각도 일부러 말입니다. 일부러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나중에 끄트머리에는 커다랗게 만들어 가지고는 그것을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죠. 보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듣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만나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먹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다니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죠. 다니면서 그냥 놓고 다니죠? 다니는 것을 끌어안고 다닙니까? 다니는 대로 뒷발자취를 떼어 놓고, 보고 만나는 것도 끌어안고 다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해 가지고, 오히려 생각 생각을 해 가지고 뭉쳐 놓고선 이걸 답답하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생각나면 나는 대로 놓으라고 했는데, 나는 대로 그냥 용광로에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간다고 그렇게 해도 놓질 못하는

☞26면으로 계속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한방(韓方)치료
파킨스씨병, 치매, 우울증,
치질, 탈항, 고질성 위장병,
전립선염 비대,
해독, 통풍,
백내장, 메니에르 증후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혜당 한방병원
02)326-3161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3-14
(서울 합정역 6번 출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091102-중-6224

참선용맹정진 안내
부산 화명동 참선도량 여래선원에서
아래와 같이 전국의 재가불자와 함께
용맹정진을 개최합니다.
새해와 함께 5일간의 장좌불와 정진은
불자님께서 모든 생명에게 주는 환희요,
소망일 것입니다. 인연을 갖추십시오,
귀중히 모시겠습니다.
■ 일 시 : 2009년 12월 29일 오후8시~
2010년 1월 3일 오후6시
■ 준 비 물 : 법복, 바루, 세면도구
■ 참 가 비 : 8만원
■ 접 수 처 : 여래선원 총무팀
051) 362-0339
010-4546-5797
■ 접수마감일 : 2009년 12월 24일
여 래 선 원
부산 북구 화명동 2315-8번지 금강빌딩 4층
(수정 전철역 1번출구)

불교대학 선학원
범음범패 제2기 학인모집
■ 교육기간 : 1년
■ 입 교 식 : 2010년 1월 25일(월요일) 오후 2시
■ 수업일시 : 주1회 / 매주 월요일 오후2시~6시
■ 교육내용
범 패 : 거불, 복청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작법, 39위, 화청
작법무 : 천수바라, 사다라니, 법고
49재및 천도재
각단불공및 사찰의식 전과정
■ 입교자격 :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승려 및 재가불자
■ 교육장소 : 대구시 동구 도동44번지 불광사 불교대학 선학원 원장 일해스님
접수 및 문 의 053)986-1080
011-9361-5566